



#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

이재경 <<< 고리울교회 담임목사

## 1.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

나의 목회 철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는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주인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누가 종이라고 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버린다면 그것처럼 주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종은 이미 종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여긴다.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자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를 드린다. 내 하루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된다.

## 2. 하나님의 심정을 실천하는 목회자

나의 목회 철학 중 중요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 뿐 아니라,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데 그치지 않기를 원하시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는 목회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되, 자기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 같은 종’이 되고 만다. 사람들에게 지시만 하고, 부교역자와 성도들을 지시의 대상으로만 이는 목회자는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지시하는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실천해야 하는 종인 것이다. 성도들에게 지시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 3.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목회자

목회를 하면서, 내가 중요시하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기체의 특징은 함께 연결되어 함께 숨 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응당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성도들은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목회자는 그 유기체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목회자일 수 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외면한 채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

#### 4. 평신도와 함께 가는 목회자

나의 목회는 기본적으로 메타처치(Meta-church: 메타는 헬라어 메타노이아[metanoia, 회개, 뉘우침]에서 나온 것으로서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전향하고 있는 교회'를 뜻하며, 전통적 예배 의식에 대한 개념, 사고방식, 의식 구조를 열린 예배의 개념, 사고방식, 의식 구조, 제자 양육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편집자 주)를 지향한다. 그 메타처치의 중심에는 평신도 사역과 소그룹 사역이 들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명자라는 면에서 "사도직과 평신도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호켄다이크의 주장에 나는 동의한다. 모든 세계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평신도를 깨우고 활용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실천한다. 제자훈련과 부부성장학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평신도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 5.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목회자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접받기를 즐겨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왔던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27절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이 사도바울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하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쓰임 받았다는 것만을 뜻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목회자였느냐, 아니면 신학교교수를 했느냐, 나아가 어떤 교단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한 법률이나 특혜는 없다. 사도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인식한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바울사도처럼 지혜로운 종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가진.

**:: 이재경** 경희대학교(B.E., M.E.)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고리울 교회 담임목사로 있다